

2020 법원직 국어 분석 및 해설

김동진 법원팀 국어 교수 이현나

[총평]

1.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높습니다.

어려웠던 19년도와는 달리 올해의 난이도는 쉬운 편이어서 88점 이상의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문항이었습니다. 지문이 길기는 했지만 익숙한 작품이 많았고 또 정답도 명확히 바로 보이는 문항들이어서 고민 없이 답을 고르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양한 구성의 모의고사로 연습을 충분히 한 학생들에게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첫 지문에서 기세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최선의 정답'을 고민하는 공부를 했느냐가 변별력을 크게 좌우했다고 생각합니다.

2. 문법/규범은 5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모두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문법이 4, 규범이 1문항입니다. 문항은 모두 추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만 기본 개념과 접근법을 모른다면 정답을 고르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세국어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3. 독해는 8지문에서 2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실전에서 시간 배분에 중요한 것이 독해 지문이 몇 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독해 문제는 총 20문항이고 이에 대한 지문은 8개입니다. 산술적으로 지문당 2.5 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 수로 계산을 해보면, 12작품이므로 작품당 1.6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지문에 대한 사전 학습도와 실전 독해력이 중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4. 고전시가는 나오지 않았고 현대시가 4세트 8문항 나왔습니다.

올해는 운문 영역이 법원직 국어 시험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간 출제되지 않았던 현대시가 4세트 출제되었습니다. 작품 수로 따지면 8작품이나 되지만 다행히 익숙한 작품이 포함되어 시간 단축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반면 그동안 매해 출제되던 고전시가는 지문으로 출제되지 않았고 3번(1책형) 문항에 <보기>로만 시조가 나왔습니다.

5. 현대소설은 출제되지 않았고 고전 “맹자”가 출제되었습니다.

19년에 2세트 출제되었던 현대소설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또 고전인 “맹자”가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재론’과 같은 고전 지문이야 충분히 출제될 수 있지만 외국의 고전 지문이 출제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국어의 출제 범위를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문항 분석 및 해설] 문항 번호는 앞의 것이 1책형, 뒤의 것이 2책형입니다.

[1~3] 조지훈, 지조론

- * 갈래 : 중수필
- * 성격 : 교훈적, 논리적, 설득적, 시사적
- * 제재 : 지조
- * 주제 : 지조 있는 삶의 자세
- * 특징

- ①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지조와 변절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함.
- ② 단정적이면서도 힘이 넘치는 문체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함.

1번/3번 정답: ① 난이도 ★

분석: 문두가 추상적이므로 선지를 통해 전개방식을 묻는 문항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선지는 표현방식인 앞절과 효과인 뒷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절이 맞는지 여부가 바로 기억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뒷절부터 판단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해설: 6단락에서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변절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①은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2번/1번 정답: ③ 난이도 ★★★

분석: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문과 내용이 단순히 일치하는 것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문을 바탕으로 추론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추론하는 문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은 후 글의 주제와 의도가 명확하게 정리된 사람에게 유리한, 변별력이 높은 문항입니다.

해설: 5단락을 보겠습니다.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은 신단체 선생의 경우처럼 삼엄한 것은 아니나 '좀 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라는 충고'라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하면 ③이 '가장'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 : 10단락에서 '자기 신념으로 일관한 사람은 변절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② [×] : 6단락에서 사람들은 개과천선의 변절은 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 ②는 글쓴이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 : 마지막 단락에서 '민족 전체의 일을 위하여 몸소 치욕을 무릅쓴 업적이 있을 때'는 변절자로 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각오가 없어도'가 아니라 '있을 때'입니다.

3번/2번 정답: ② 난이도 ★

분석: 소재를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밑줄만 보지 말고, 소재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향으로 소비되었는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의 확신을 가지고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해설: ㉠은 지조가 강한 인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광명월' 역시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변치 않는 존재로 다뤄지고 있고요. 따라서 두 소재는 모두 지조를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① [×] : '눈비'는 외부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념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은 변절자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니다.
- ③ [×] : '가마귀'는 '야광명월'과 대조되는 것으로 결과 속이 다른 부정적 대상입니다. 또한 ㉡은 변절자의 비난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④ [×] : ㉢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몸소 치욕을 무릅쓴 업적이 있을 때는 변절자로 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5] 비문학,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 보완'

- 1단락: 대중 민주주의의 역사
- 2단락: 자본주의의 역사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 3단락: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

4단락: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하고 번영한 이유1-민주주의의 적극적 개입

5단락: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하고 번영한 이유2-자본주의의 진화

주 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상호 번영한 이유

4번/5번 정답: ③ 난이도 ★

분석: 무난하고 평이한 문항입니다. 지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글의 제목을 참고하여,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설: 지문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 후 이 두 체제가 결합하여 번영을 이룬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4, 5단락) 있습니다.

5번/4번 정답: ③ 난이도 ★

분석: 평이하고 무난한 문항입니다. 하지만 세부 정보의 일치 여부를 다루고 있으므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를 나눠서 인식하고 선지를 정확히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1, 2단락에서 [민주주의/제대로 된 대중 민주주의], [자본주의/ 보통 근대 자본주의]의 정보를 나눠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2단락 5줄에서 '보통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은 1776년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이해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고 했습니다.

- ① [×] : 지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1단락에서 미국에서조차 제대로 된 대중 민주주의 형태는 20세기 초에야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 ② [×] : 2단락에서 수많은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 ④ [×] : 3단락에서 사실 두 체제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면서 두 체제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6~7] (가) 백석, '여승' (나)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가) 백석, '여승'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서사적, 애상적
- * 제재 : 여인의 일생
- * 주제 :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 * 특징
- ① 회상적인 어조로 표현함.
- ② 역순행적 구성 방식
- ③ 시상의 압축과 절제

(나) 나희덕, '못 위의 잠'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서사적, 애상적, 회상적
- * 제재 :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아비 제비
- * 주제 : 유년 시절 초라했던 아버지의 삶과 그에 대한 연민
- * 특징
- ① 아비 제비와 아버지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병치시켜 구성함.

- ② '현재 - 과거 회상 - 현재'로 장면을 구성함.
- ③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표현함.

(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고백적, 회상적, 애상적, 감각적
- * 제재 : 아버지
- * 주제 :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 * 특징
- ①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침.
- ② 어머니에게 말하듯이 표현하여 고백적 성격을 드러냄.
- ③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조적인 이미지들을 표현함.

6번/7번 정답: ③ 난이도 ★

분석: 세 작품 중 낯선 작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므로 [화대 상반]만 이해해도 답은 쉽게 보입니다. ②, ③은 정서 ①, ④는 시상전개와 관련된 선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므로 헛갈리는 선지가 있었다더라도 명확히 틀린 내용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설: (다)에는 시적 대상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는 시적 대상인 '여승'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는 가족의 해체로 여승이 된 여인의 삶의 비극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 ① [O] : (가)는 사람인 '여승'이, (다)는 사물인 '물'이 시상을 유발합니다.
- ② [O] : 1연의 '불경처럼 서러워졌다'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유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④ [O] : (나)와 (다)의 화자 모두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7번/6번 정답: ③ 난이도 ★★

분석: <보기>의 항목을 기준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거나 [화대 상반]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잡고 있으면 정답은 확실히 보입니다. (나)와 (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다루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이 파악된 상태로 문제를 풀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해설: (다)에서 '꽝꽝'과 말줄임표가 사용된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흑한을 막느라 하얗게 얼음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나약한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옳은 내용인 ④와 일치하지 않는 선지이기도 합니다.

- ① [O] : 시어의 의미는 문맥에서 파악됩니다. (나)의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다)의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라는 표현에서 이 두 표현이 '고달픈 삶'과 연관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② [O] : 화자는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제비를 보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 ④ [O] : (다)에서 아버지는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느라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것이므로 부모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9] (가) 김수영 '풀' (나) 박두진 '해'

(가) 김수영 '풀'

- * 갈래 : 자유시, 주지시, 참여시
- * 성격 : 상징적, 주지적, 참여적, 비판적
- * 제재 : 풀
- * 주제 :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 * 특징
- ① 대립적 사상 구조로 주제를 강화함.
- ② 반복과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 ③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나) 박두진 '해'

- * 갈래 : 산문시, 서정시
- * 성격 : 상징적, 열정적, 미래 지향적
- * 제재 : 해
- * 주제 :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소망
- * 특징
- ①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함.
- ②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③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강렬한 소망을 표현함.

8번/9번 정답: ② 난이도 ★

분석: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항입니다. 쉬운 문항이므로 여기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평소 연습한 대로, 작품을 하나 읽은 다음 선지를 소거해서 답을 찾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설: (가)는 '풀'과 '바람'의 대립이 (나)는 '해'와 '달밤'이 대립적 의미를 형성하는 시어입니다. 이러한 시어의 대립은 시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②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 ③ [×] : (나)에만 해당합니다.
- ④ [×] : (나)에만 해당합니다.

9번/8번 정답: ② 난이도 ★

분석: 평이하고 무난한 문제입니다.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대강의 맥락만 이해하면 쉽게 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설: ㉠은 높고 울었다가도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 존재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또 ㉡은 '말갈게 씻은 얼굴'로 화자가 '숫아라'라고 원하는 대상으로 의인화되어 있고요. 그러니 둘 다 화자가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10]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저항적, 반성적, 미래 지향적
- * 제재 : 현실 속의 자신의 삶(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 * 주제 :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고뇌와 자기 성찰
- * 특징

- ①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함.
- ②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사상을 전개함.

10번/10번 정답: ① 난이도 ★

분석: 전개방식, 표현법에 대한 문항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사전 학습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답을 빠르게 찾았으리라 생각됩니다. ①번을 읽는 순간 정답의 확신을 가지셨기를 기대합니다.

해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사상이 전개된다는 것은, 화자가 (주로 고정된 위치에서) 시선을 옮겨서 보이는 대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는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1, 2연에서 알 수 있듯이 내면의 성찰에 따라 전개되는 시입니다.

- ② [O] : 1연에서 '남의 나라(일본)의 밤'에 있는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O] : '어둠'과 '등불/아침'의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의 극복이라는 시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④ [O] : 7연에서 반성적 태도가 9연에서 미래지향적 어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부정적 현실의 극복이라는 주제의식에 일조합니다.

[11~14] 박지원, '호질'

- * 갈래 : 한문 소설, 우화 소설, 풍자 소설
- * 성격 : 풍자적, 비판적, 우의적
-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 배경
 - ① 시간 - 정(鄭)나라
 - ② 공간 - 어느 고을
- * 제재 : 양반의 허위의식
- * 주제 :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 비판
- * 특징
 - ① 우의적 수법을 사용함.
 - ②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여 제시함.
 - ③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삶을 비판함.

11번/12번 정답: ① 난이도 ★

분석: 평이한 문항입니다. 서술상 특징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묘사, 대화, 성격제시 방법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시대상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묘사된 부분이 있었는지 인지하며 읽었다면 답을 빠르게 찾았을 것입니다.

해설: 시대적 배경이란 조선시대 혹은 전쟁 이후처럼 특정 시기를 알 수 있게 하는 배경입니다. 이에 작품에는 시대적 배경이 묘사된 부분이 없습니다.

- ② [O] : 범의 발언 중 '내 듣기로 유(儒)란 유(諛)라 하더니'에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북곽 선생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 ③ [O] : 지문은 전체적으로 인물의 발화와 행동을 통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④ [O] : 익인화된 범의 발언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번/11번 정답: ④ 난이도 ★★

분석: 사실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화의 세부 이해 여부를 묻는 문항이므로 전체 맥락을 놓치고 정보의 잔상만 남은 상태에서는 답을 헛갈리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발화를 끊어서 인식하는 것, 인물의 성격을 인지하며 읽는 연습을 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해설: 북곽선생이 범을 보고 겁에 질려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범님'이라고 칭하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을 비교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성을 비교하는 것은 북곽선생이 아니라 범이 하는 말에 나옵니다.

- ① [○] : ㉠이 있는 부분의 단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 ② [○] : 1단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 ③ [○] : 범의 발언 중 첫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13번/14번 정답: ④ 난이도 ★

분석: 평이한 문항입니다. [줄거리]를 바탕으로 북곽선생이 부정적 인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설: 북곽 선생은 범이 무서워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침을 합니다. 특히 <중략> 이후 부분에서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범이 사라지자 태도가 바뀝니다. 성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따라서 '비굴함을 숨기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번/13번 정답: ③ 난이도 ★★

분석: 한자성어 문항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성어들은 아니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북곽선생'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부터 걸러내면 정답이 나오므로 실제 한자성어를 몰라도 답은 맞힐 수 있습니다.

해설: 북곽선생은 명망이 높은 선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부와 정을 통하고 호랑이 앞에서 비굴하며 상황이 바뀌자 허세를 부리는 인물이죠. 이러한 북곽선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③입니다. '양두구육'은 '양의 대가리를 내어놓고 실은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찮음'을 뜻하는 말이므로 '평판과 다르게 실상은 부도덕하며 위선적'인 북곽선생에게 어울립니다.

- ① [×] : '동량지재(棟梁之材)'는 한 집안이나 한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인재를 말합니다.
- ② [×] : '천의무봉(天衣無縫)'은 하늘의 직녀가 짜 입은 옷은 솔기가 없다는 뜻으로, 시문(詩文)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을 이릅니다. 혹은
- ④ [×] :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을 이릅니다.

[15~17] (가) 한용운, '알 수 없어요' (나) 신경림, '장자를 빌려'

<p>(가) 한용운, '알 수 없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명상적, 관조적, 관념적, 구도적, 역설적 * 제재 : 자연 현상 * 주제 :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과 구도의 정신 * 특징 <p>① 경어체를 사용하고 의문형 어구를 반복함.</p>

- ② 자연 현상을 통한 깨달음을 형상화함.
- ③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음악성과 함께 형태적 안정성을 부여함.

(나) 신경림, '장자를 빌려'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묘사적, 성찰적, 대조적
- * 제재 :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세상
- * 주제 :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
- * 특징

- ① 산의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과 산 아래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대조해서 나타냄.
- ② 사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냄.
- ③ 삶의 관점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음.

15번/17번 정답: ④ 난이도 ★★

분석: 두 시 모두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사전 학습이 되었을 가능성도 낮고요. 따라서 시의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 [화대상반]을 파악한 후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의도에 따라 답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②와 ④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해설: (나)의 제목은 '장자를 빌려'입니다. 장자를 빌려서 화자가 하려는 게 무엇인지가 시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시의 2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멀리서만 혹은 가까이서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즉 세상을 보는 적절한 거리, 관점, 태도에 관한 깨달음이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구도적(종교적 깨달음이나 진리를 추구함)인 자세도 사물의 새로운 의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① [○] : (가)에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절대자를 상징하는 '누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 ② [○] : 전체적인 분위기가 종교적, 명상적, 관념적입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등에서 불교의 윤회사상이 드러난다는 등의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시의 작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③ [○] : 1연에서 구체적인 경험이 2연에서 깨달음이 나타나는 구성입니다.

16번/15번 정답: ④ 난이도 ★★★

분석: 어려운 문항입니다. ㉠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작은 시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입니다. 이를 공감각적 심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선지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나 선지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공감각으로 파악하거나 당황해서 기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감각을 버리고 빨리 다른 기준을 찾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정답의 기준은 ㉠의 내용이 '근원-흐름-설의'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점, 청각적 심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감각이 아닌, 청각적 심상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순간, 정답이 보이게 됩니다.

해설: 정답의 <조건>은 ㉠의 감각적 이미지, 어조, 표현 기법을 유지할 것입니다. 예찬적 어조와 설의법,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는 '신비로운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있고 ㉠와 마찬가지로 근원에 대한 언급(보리수에서)이 있으며 설의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 ① [×] : '풀꽃'과 '미소'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므로 조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② [×] : '느티나무'는 시각적 이미지, '사랑'은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조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③ [×] : '흰 구름'과 '그림'은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므로 조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7번/16번 정답: ③ 난이도 ★

분석: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5번에서 정답을 ④로 고르셨다면 이 문제의 정답도 쉽게 보였을 것입니다. 시어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결국 주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정답은 골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 지린내, 악다구니와 같은 것은 결코 상쾌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부정적인 경험의 구체적 제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속적 공간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험은 ㉠로 이어지면서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18번/18번 정답: ① 난이도 ★★

분석: 추론형 문항입니다만 지식이 없으면 못 푸는 문항입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며 형태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언과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밑줄 친 부분이 활용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답이 보입니다. 활용을 할 때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고 이에 맞추어 활용해야 합니다. 활용이 가능하면 형용사 불가능하면 관형사입니다.

해설: ㉠ [○] : 체언 '말'을 꾸미고 있는 '무슨'은 '무스다/무술다'와 같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형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 [○] : 체언 '사람들'을 꾸미고 있는 '모든'은 '모드다'와 같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형사입니다.

㉢ [×] : 체언 '일처리'를 꾸미고 있는 '빠른'은 기본형이 '빠르다'입니다. 형용사가 관형어로 활용된 것입니다. 관형사는 아닙니다.

㉣ [×] : 체언 '풍경'을 꾸미고 있는 '아름다운'은 기본형이 '아름답다'입니다. 형용사가 관형어로 활용된 것입니다. 관형사는 아닙니다.

[19~21] 맹자

- | |
|--|
| 1) 진심장구 상: 좋은 정치란 백성을 가르쳐서 스스로 협조하게 하는 정치
2) 진심장구 상: 법과 도리를 지키는 법
3) 진심장구 하: 백성의 중요성과 천자가 되는 법
4) 진심장구 하: 천자에게 필요한 덕목인 인자
5) 양혜왕장구 하: 인의를 저버린 임금은 버림을 받게 됨.
주 제: 인의와 백성을 중시하는 맹자의 정치관 |
|--|

19번/20번 정답: ① 난이도 ★

분석: 정답이 분명하므로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지면 모두 들린 내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아닌 것을 하나씩 소거해서 최선의 정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설: 두 번째 부분에서 제자인 도응과의 문답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탕과 무왕의 구체적인 사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게 생각하다가 답을 놓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선지 맥락상 이 글을 정리한 사람으로 가볍게 이해하고 넘기면 됩니다.

20번/19번 정답: ① 난이도 ★★

분석: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맹자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용 일치로 접근하면 안 되는

문항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부합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의 추론적 이해를 묻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①에서 정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신하인 탕과 무왕이 각각 자신의 임금인 걸왕과 주왕을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 맹자는 걸왕과 주왕은 인의를 저버렸으므로 이미 임금이 아니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죽인 것은 임금을 죽인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①과 같은 맹자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에 '정당하다'고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당하냐' 하는 물음에 답한 것으로 보아 ①과 같이 생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② [×] : 두 번째 내용과 연관된 선지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순'은 천자의 의무보다 자식의 의무를 우선시합니다.
- ③ [×] : 세 번째 내용과 관련된 선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 ④ [×] : 첫 번째 내용과 연관된 선지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법령을 정비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위정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법령 정비에 따른 결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이것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21번/21번 정답: ④ 난이도 ★

분석: 정보의 타깃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발체독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일치로 접근하면 ②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탐구'하는 것이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설: ㉠ 첫 부분과 넷째 부분에서 통치자는 인자한 태도로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섯째 부분에서 '부모 노릇을 하는 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 셋째 부분에서 백성이 가장 귀중한 존재이므로 이들의 마음에 들어야 천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덕을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는 존재라는 내용은 지문에 없습니다.

22번/23번 정답: ② 난이도 ★★

분석: <보기>에 제시된 설명을 이해하고 예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사동사와 피동사의 개념과 차이에 대한 학습이 있는 경우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기>의 예문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답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에서 '시계를 보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②번에서 어색함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문항은 맞춤법을 묻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설: 사동사와 피동사의 구분은 형태가 아닌, 의미입니다. '~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으면 사동, 다른 주체에게 동작을 당하면 피동입니다. 또 다른 구분법은 목적어 유무입니다 <보기>의 예문을 보면 사동사 앞에는 목적어가 있고 피동사 앞에는 없습니다. 선지를 보면 ②의 선지에서 ㉠은 목적어 '시계를'이 있고 '보이다'는 맥락상 '보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므로 사동사입니다. 반면 ㉡에는 목적어가 없고 '보이다'는 피동의 의미로 이해되므로 피동사입니다.

- ① [×] : ㉠ 사동사 ㉡ 사동사입니다.
- ③ [×] : ㉠ 사동사 ㉡ 사동사입니다.
- ④ [×] : ㉠ 피동사 ㉡ 사동사입니다.

23번/22번 정답: ① 난이도 ★★

분석: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을 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접두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접두사와 관형사의 차이는 결합력에 있는데 이를 알고 추론해서 접두사를 파악하든지 아니면 접두사 혹은 파생어를 외워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설: <보기>에서 말하는 '후자의 예'는 파생어입니다. 파생어는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된 것으로 ①은 접두사 '강-'이 결합된 파생어의 예시입니다. 참고로 파생어는 몇몇 어근과만 제한적으로 결합합니다. '강똥똥하다, 강심하다, 강맛있다'와 같은 표현이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 제한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 : 합성어의 예입니다. '첫'은 관형사로 '사랑, 아픔, 학교, 친구, 직장' 등 여러 명사와 어울릴 수 있습니다.
- ③ [×] : 합성어의 예입니다. '새'는 관형사로 '친구, 집, 책, 신발' 등 여러 명사와 어울릴 수 있습니다.
- ④ [×] : 합성어의 예입니다. '알다'는 형용사입니다. '알다+보다'가 결합되었으므로 '뛰놀다'와 같은 합성어입니다.

24번/25번 정답: ④ 난이도 ★★★

분석: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추론형 문제입니다. <보기>를 이해했다라도 선지가 모두 맞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용의 기본 원칙을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법 문제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스러거리다'와 '부스러기'가 의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잡아내는 게 정답의 포인트입니다.

해설: '부스러기'의 어근은 '부스러'가 아닙니다. 둘은 서로 의미의 관계가 없습니다. '부스러거리다'는 '부스러소리가 나다'라는 의미이고 '부스러기'는 '잘게 부스러진 찌꺼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부스러)에 접미사가 붙어서 '부스러기'가 되었다는 ④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25번/24번 정답: ④ 난이도 ★★

분석: <보기>를 읽고 적용하는 추론형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부분만 읽고 정답을 고르려고 하면 답이 안 보이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선지에만 매달리지 않고 <보기>를 더 읽어보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 '상보 반의어/등급 반의어/관계반의어'의 정의를 각각 정리하면 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해설: 관계 반의어는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 예시로 된 '남편-아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 반의어라고만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는 '반의어'의 구체적 종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 관계'를 포착해야 합니다. 내가 샀으면 너는 팔았고, 내가 부모면 너는 자식이고, 이쪽이 동쪽이면 저쪽은 서쪽이 되는 것이 '상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있다-없다'는 이러한 상대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보기>의 상보 반의어에 해당합니다. 상호 배타적이어서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